

『東醫壽世保元』에서의 舊, 新方에 관한 몇가지 탐구

金東植*

“四象醫學”이란 우리 민족의 醫學大師 리제마 선생이 그의 저서 『東醫壽世保元』에서 제출한 太陽人, 太陰人, 少陽人, 少陰人, 네가지 象을 나누어 辨象施治하는 의학을 가르킨다. 이 學說은 『醫方類聚』, 『東醫寶鑑』과 『濟衆新篇』이후 우리민족의학상에서 또 하나의 큰 성과이며 특히 그 어느 의학과도 구별이 선명한 독특한 의학체계이다.

리제마 선생은 『東醫壽世保元』 『醫源論』에서 «나는 의학 경험이 있는지 5, 6천년 후에 태어나 옛사람들의 저서에 의하여 요행으로 사상인의 장부와 성리를 깨닫고한 의학을 저작하여 그 이름을 수세보원이라고 하였다. 저서 중에서 장중경이 론한 바 태양병 소양병 양명병 태음병 소음병 권음병은 병증으로서 이름을 지어 론한 것이고 내가 론한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은 인물로서 이름을 지어 론한 것이니 두가지를 혼돈하여 보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 꾸준하게 연구한 연후에야 가히 그 뿌리를 찾아내고 그 가지와 잎을 채취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였다. 그는 前人들의 저서를 학습하는 가운데서 계발을 받고 사람은 부동한 體質을 갖고 있으며 臟腑性理가 不同하므로서 發病이 다르고 症狀表現도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深入研究

하고 참답게 발휘하여 『東醫壽世保元』을 씌냄으로서 四象醫學學說을 定立하였다.

四象醫學에서 보면 «약은 사람에게 局限되어있다.»하였는데 이는 四象醫學에 있어서의 하나의 독특한 藥性觀인 것이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사람이 약물에 대한 선택성을 치중하였으며 어떤 약들은 일부 사람들의 질병에 대하여 치료와 예방작용이 있으나 다른 일부 사람에게 대하여서는 치료작용을 일으킬수 없을 뿐더러 도리어 엄중한 부작용을 일으킬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람의 天稟臟局의 強弱, 陰陽分布, 氣質特点, 體質不同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인 것이다. 때문에 四象醫學에서는 藥物歸象, 按象要藥, 辨象施治, 隨證加減하는 用藥規律을 제출하였던 것이다.

東武李濟馬先生은 『東醫壽世保元』에서 «소음인의 병증과 약리는 장중경이 거의 상세하게 발명하였으나 송 나라 원 나라 및 명 나라의 모든 의학자들이 남김없이 상세하게 발명하였다. 소양인의 병증과 약리는 장중경이 절반이나 상세하게 발명하였고 송 나라 원 나라 및 명 나라의 모든 의학자들도 거의 상세하게 발명하였다. 태음인의 병증과 약리는 장중경이 대략 초보적인 것을 알았으나 송 나라

* 延邊醫族醫藥研究所

원 나라 및 명 나라의 모든 의학자들은 훨씬 더 낮게 약리를 발명하였다. 태양인의 병증과 약리는 주진형이가 대략 초보적인 것을 알았다. 이렇게 된 연후에 본초에서 대략 약리가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리제마 선생은 『東醫壽世保元』을 저서함에 있어서 진정 前人들의 많은 저서들을 탐독하고 연구하였을 뿐더러 또한 古傳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히 자기의 독창적인 관점을 수립시켰던 것이다.

리제마 선생은 『東醫壽世保元』에서 장중경등 의학가들의 處方(簡稱舊方)을 채납함과 동시에 자기의 新定經驗方들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았다. 즉 소음인의 舊方 42개, 新定經驗方 24개, 소양인의 舊方 12개, 新定經驗方 2개이다.

그럼 아래에 舊, 新方に 관한 몇가지 인식을 적으려 한다.

補中益氣湯은 李果의 『東垣書』에서 나온것인데 주로는 脾胃氣虛, 氣虛不陷으로 인한 發熱, 自汗出, 渴喜溫飲, 少氣懶言, 體倦肢軟, 面色皸白, 大便稀溏, 脫肛, 子宮下垂, 久瀉, 久痢久瘵등을 치료하는 방제이다. 東武는 이 舊方에서 升麻, 柴胡를 없이고 藿香, 蘇葉을 가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적응증으로는 太陽病과 陽明病으로 인한 亡陽이 되려고 할때 쓴다 하였다. 기실 이것은 東垣이 예를 든 병증과 다를 것이 없다. 다르다면 리제마는 亡陽이라 하고 東垣은 勞倦傷 脾陰虛生內熱이라고 한 표현방법이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은 동일한 것이다. 東垣은 升麻, 柴胡를 넣어서 下陷된 淸陽을 升擧시키려 하였은즉 人間體質의 特殊性和 藥物歸象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때문에 補中益氣湯을 만들며 溫補와 淸陽을 兼施하면서 升陽益氣를 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만일 인간 체질의 특수성 즉 소음인의 경우에는 腎大脾小하므로 升陽이 되지 못하는 것은 항상 寒氣(陰氣)가 과하기 때문이지 결코 陽氣가 과한 것은 아니므로 寒涼之劑를 쓸 필요까지는 없

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마 선생은 升麻, 柴胡 대신으로 藿香, 蘇葉을 썼으니 藿香은 辛溫之氣로서 上中二焦의 滯氣를 上升시키고 蘇葉은 辛溫之味로서 開胃益脾하면서 利肺下氣시키는 것이다. 때문에 新定補中益氣湯에서 비록 升麻, 柴胡와 같은 淸涼之劑는 없어도 藿香의 辛溫으로서 升陽작용을 도와주고 蘇葉의 辛溫은 반대로 利肺下氣하게 한즉 이것이 곧 리제마 선생이 象을 나누어 새로운 四象醫學處方을 만들어낸 동기가 아닌가한다.

涼膈散은 『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 나온 것인데 주로는 上中焦邪郁生熱之證을 치료한다. 적응증으로는 身熱, 口渴, 胸痛煩熱, 面赤唇焦, 口舌生瘡, 或咽痛吐衄, 便秘溲赤, 或大便不暢, 舌紅苔黃, 脈滑數한 것이다. 東武는 舊方에서 大黃, 黃芩, 甘草를 없이고 生地黃, 忍冬藤, 知母, 石膏, 防風, 荊芥를 가하여 “涼膈散火湯”을 制方하였던 것이다. 涼膈散은 주로 瀉火通便, 淸上泄下하는데 立方하였는데 만약 少陽人의 경우에는 腎大脾小하고 火氣成局하였은즉 下竭腎水하고 上窮脾肺之陰하여 거의 涸渴될때 大黃, 芒硝와 같은 峻攻하는 약물을 사용한다면 火와 眞陰까지 없애고 말것이 아닌가? 때문에 東武는 大補腎水하는 生地黃과 解表散邪하면서 上焦壅結之熱을 제거시키는 忍冬藤을 가하고 太陰陽明之火를 제거하면서 生津하는 石膏와 淸上肺金, 下瀉腎火하면서도 滋陰潤腎하는 知母를 씌워서 補陰瀉火하게 하고 中焦의 風熱을 瀉하는 防風과 淸上頭目之邪하는 荊芥로서 梔子, 薄荷와 함께 表裏의 供濟作用을 일으켜 胃局淸陽은 上升하게하고 脾局陰氣는 下降하게하였은즉 림상에서 舊, 新方을 사용함에 보며는 新方(涼膈散火湯)은 참으로 少陽人의 瀉火存陰하는 名方으로써 손색이 없는 것이다.

等等의 것으로 보아 東武李濟馬先生의 四象醫學은 傳統醫學에서의 하나의 큰 學說이며 큰 진보인 것이다. 藥物舊象, 按象要藥, 辨證施治는 古今의

그 어느 의학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의학이다. 《東醫壽世補元》의 뒤를 이어 前輩들은 《東醫四象新編》등 저서와 임상경험으로 많은 四象醫學 藥物과 方劑를 연구하였는데 可望 四象醫學은 금후에 더욱 큰 발전을 가져올 것이며 세계 인류에 대하여 더욱 큰 공헌을 할 것이라고 나는 믿어 마지 않는 바이다.

参 考 文 獻

1. 東醫壽世保元.
2. 中國醫學百科全書(朝醫學).
3. 中國大百科全書.
4. 中醫內科學.
5. 方劑學.